

2월의 기도



2024년 둘째 달에는...

1. 세계에 퍼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며 고국을 그리워 할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정착되고 그 사랑이 주변에 퍼져 나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3.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디시이엠이 앞장서 세계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초석되게 하시옵소서.
4. 국내는 물론 세계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분쟁들로부터 속히 탈출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속히 도래하게 하시옵소서.
5. 유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야가 하나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 국민들이 박수로 격려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참 인생의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인생은 길을 찾기 위한 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길로 접어들면 성공하지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실패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길을 잃었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 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심령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목말라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절망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던 여인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십니다. 돈이 길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갔다가는 실망할 것이고, 사업이 길인 줄 알고 사업을 따라갔다가는 절망하게 될 것이며, 정치가 길인 줄 알고 정치를 따라가면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것입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03년 해외성회

< 미국 북부 필라델피아 성회 >



북미켈라라이트오순절대회 벨리포지션센터 메인홀 전경



부속실로 마련된 지하스크린 예배실, 이조차 들어설 틈이 없었다.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김성혜 총장



성회에 참석한 사무총장 시가끼 목사, 김성혜 총장 비롯 순복음선교사들

227번째 맞이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2003년 7월의 연휴기간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성령의 뜨거운 메시지가 선포됐던 것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려는 미국인들의 소망을 담아 미국의 독립이 선포된 필라델피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지의 세계로 달려온 청교도들의 염원이 담긴 독립, 그리고 그 독립의 기초가 된 전투의 최대 격전지인 벨리포지(Valley Forge)에서 최초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해방의 역사가 새롭게 선포된 것이다.

DCEM이 주관하고 북미켈라라이트오순절협의회(The Pentecost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 Kelalites)에서 주최한 본 성회는 200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용기 목사를 초청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해방 사역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했다.

21번째 북미켈라라이트오순절대회로 맞이했던 '2003 펜실베이니아성회'는 3일동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인도 이주민 교회 지도자 3만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8천 여석의 본당은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지하 2층에 마련된 스크린 예배실 역시 사람들로 가득 채워 온 사람들이 어둠을 물리며 자리를 찾기에 힘에 부쳐졌다.

벨리포지션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본 성회는 이사가야 60장 1절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죄와 질병과 고통의 사슬로부터 독립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미국 최대의 휴일인 독립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된 이번 성회는 성회가 진행되기 이틀 전부터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이민 1세대들로부터 이민 3세대의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했

다. 참석자들은 인도의 전통적인 리듬과 음율이 살아있는 찬양을 시작으로 자라나는 2세대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고 고국 인도의 구원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북미켈라라이트오순절협의회(PCNAK)'는 인도 서남부에 위치한 켈라라(Kerala)주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 중 오순절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는 사람들의 협의체로,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의 힘을 얻어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들의 고향인 켈라라주는 사도 도마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주로 유명하다. 이들은 매년 이 대회에 모여 오순절 신앙을 재정립하고 고국인 인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다.

당시 성회는 특히 자라나는 2세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인도가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뜨겁게 기도한 성회로 기록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데다 (시편 103편 1절~5절)

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줄까?’하는 의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2. 죄를 회개하라

둘째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냥 떼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며,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필요를 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저 “하나님, 주시고 싶거든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확신이 다가왔으면, 이제 구함의 기도는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4. 감사하라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입술의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인 도장을 마음에 찍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빈자리를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도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집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체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1. 찬양을 드려라

첫째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시편 50편 23절

사차원의 영성

- 말(씀)의 위대함 -



▲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대화를 나누는 조용기 목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곧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3차원의 세계가 움직인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얻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말의 사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위대한 언어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한다.



▲ 1992년 8월 세계 성령화 대성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렸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지켜보셨다. 그리고 성경말씀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 2:19)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 자체라는 것이고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깨달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훈련을 했다. 말씀훈련은 기독교 영성을 이끌어 온 핵심적인 훈련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영성훈련 방법을 개발해 자신들의 독특한 영성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의 영성’에 근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레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 영성을 발전시켰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위대하고 창조적인 언어로 변화됐다. 이러한 위대한 말의 사용이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위대하고 창조적인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이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한 말을 사용해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 3차원의 세계는 긍정적인 현실로 변한다. 하지만 4차원의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자동적으로 영의 세계가 닫혀 버리고 결국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의 선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의 권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